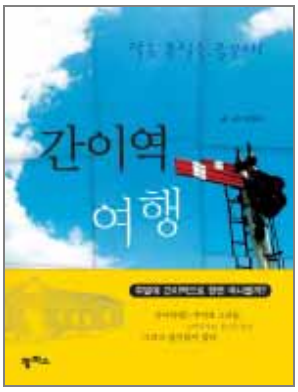
작은 휴식을 꿈꾸게 하는 간이역 여행

사람을 먼 곳으로 데려다 주는 모든 것들은 매력적이다. 이동수단은 그래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교감하는 특별한 무엇이다. 그 중에서도 기차는 특히 사람을 매혹시킨다. 자동차처럼 자유롭지도 않고, 비행기처럼 빠르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차와 더욱 진하게 감정을 주고받는다. 기차가 달리는 철길도, 멈춰서는 기차역도 사람들을 사로잡는 특별한 장소가 된다.



간이역 여행
임병국 | 팜파스

기차의 매력에 빠진 사람

기차와 철길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로 일본인들이 사랑한 작가 미야와키 슌조(宮脇俊三, 1926~2003)가 있다. 일본의 유명 잡지 <주오코론>(中央公論)을 대표하는 명편집자였던 미야와키는 철도여행을 너무나 사랑한, 요즘 말로 하면 '철도 마니아'였다. 그는 20 여 년 동안 일본 국유철도의 노선을 차례로 여행했고, 1977 년 마침내 모든 노선을 모두 답파한 뒤 이듬해 일본국철 완승여행기 『시각표 2 만킬로미터』란 책을 펴냈다. 이후 그는 산을 넘는 노선만 골라 다닌 여행기, 사라진 노선을 답사한 폐선 탐방기, 완행열차 여행기, 지정석을 피해 자유석만 타본 여행기, 시베리아철도 여행기, 인도 중국 스위스 유럽 철도여행기를 줄줄이 내며 '철도작가'란 호칭을 얻었다. 물론 한국 철도여행책도 냈다.

한국의 간이역을 찾다

한국판 미야와키 같은 이가 있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됐다. 새로 나온 책 『간이역 여행』의 지은이 임병국씨다. 미야와키처럼 많은 기차여행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회사원이면서도 짬을 내 전국 각지 철도여행을 다니며 철도여행 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임씨의 열정을 보면 철도에 대한 사랑이 미야와키 못잖은 듯하다. 올해로 꼭 10 년째 전국 각지의 간이역을 돌아다닌 발품을 모은 책이 바로 『간이역 여행』이다.

공교롭게도 건축전문가 임석재 이화여대교수 역시 최근 『한국의 간이역』(인물과사상사)을 펴냈다. 한국 사회의 숨은 구석에서 묵묵히 사람과 길, 시간과 공간을 이어준 간이역을 탐구하는 책 두 권이 동시에 독자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두 책 모두 간이역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겼고, 정성스런 사진들이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임 교수의 책이 간이역이란 공간에 담긴 건축적, 역사적 의미를 들여다보는 인문교양서라면, 임병국씨의 책은 간이역을 찾아 떠나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여행안내서다.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 유명한, 그래서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정동진역 말고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운치 있는 간이역들이 많은지 이야기보따리를 펼쳐 보인다. 10 년 구력의 간이역여행 선배가 옆에서 손을 붙잡고 함께 기차에 오르자고 조근조근 권하는 듯한 책이다.

놀라움을 던져주는 간이역들

간이역은 사전을 보면 '역무원이 없고 정차만 하는 역'이다. 임씨는 여기에 여행자의 관점을 더해 '한적한 마을 외딴 역'들로 간이역을 규정했다. 원래 우리나라 간이역은 500 곳이 넘었는데 이제 기차가 서는 '살아있는 역'은 200 여 개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볼 만한 곳들을 골라 직접 찍은 사진과 취재한 이야기를 엮었다.

임씨가 골라 소개하는 간이역들은 기차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커다란 도시 기차역만 봤던 사람들에게는 먼저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겨우 3 평 남짓한 네모 시멘트 상자가 어엿한 기차역이며, 그런 역들이 전국에 아직도 저리 많으며, 우리 땅 구석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 귀여운 역들이 얼마나 매력덩어리들인지 순서대로 깨닫게 된다.

간이역 풍경 뒤 사람 이야기

그렇게 간이역과 만난 다음에는 한적하고 아련한 간이역의 풍경 뒤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핍진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중간, 작은 상자같이 생긴 원북역. 이 역은 한 사람이 기증해서 생겨난 역이다. 어린 시절 마을을 떠났다가 돌아온 유지가 마을을 위해 사재를 털었다. 이 작은 역 안에 원북마을의 역사와 자아실현을 추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었다.

역장의 하루 일과가 문 옆에 적혀 있는 희한한 역도 있다. 더 희한한 건 일과의 내용이다. 6 시 30 분 일어나 하품하기, 기지개 두 번. 10 부터 아이들과 놀 준비. 10 시 14 분부터 오후 3 시까지는 정말로 아이들과 노는 일과가 이어진다. 귀여운 하얀 개 아롱이가 명예역장인 경북 문경의 점촌역 이야기다. 동화 같은 역을 만들기로 한 역무원들의 노력이 모여 정말 동화처럼 새롭게 태어난 역이다.

간이역에 얽힌 이야기, 이야기…

때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어버린 역들도 만난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폐선이 되어 살림집으로 쓰이는 역들은 그래도 나은 편. 중앙선의 간이 승강장이었던 승문역은 심지어 외양간으로 변해버렸다. 승문역이 가슴 아프게 사라진 대신 포근한 이야기가 하나 생겼다. 역 근처에 한 할아버지가 돌탑을 쌓아 철도별장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옛날 이 역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 책에선 강조하지 않았지만 사실 간이역은 일제 강점기 수탈의 산물이다. 아픈 역사에서 생겨난 간이역들이 세월이 흘러 이제는 간직하고 보듬어야 할 아름다운 공간이 됐다. 그런 점에서 간이역들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국토지리 교과서다. 이제 사회경제구조는 더욱 빠르게 바뀌어가면서 간이역들은 점점 더 빨리 사라져간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선 새로운 간이역들이 태어난다. 지난해 경남수목원 가는 이들을 반기기 위해 만들어진 진주수목원역은 간이역의 막내인 아기역이다.

간이역을 이야기하지만 이 책은 결국 철도 나들이법을 가르쳐주는 안내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간이역 이야기 사이사이에 동해안 바다열차, 아이들이 좋아하는 꼬마열차, 그리고 전국 기차공원 등등 다양한 기차여행 정보와 주변 맛집과 이용거리 등의 여행용 팁을 꼼꼼히 집어넣었다. 가보고는 싶은데 살기 바빠 언제 가겠냐며 지레 포기할 이들을 위한 간이역도 소개한다. 연애중인 사람은 새로운 데이트 코스를, 자녀들 둔 부모는 새로 도전해 볼만한 가족여행지를 건질 수 있다. 읽으면서 절로 알게 되는 지리 교양은 덤이다.

구본준(<한겨레> 기획취재 팀장 http://blog.hani.co.kr/bonbon/)